

문재인 “내가 DJ·盧정부 적자” 호남 구애

후보 단일화 합의 후 첫 광주·전남 방문

민주 선대위 조직 총출동 뒷밭 민심 잡기

민주통합당 문재인 대선 후보가 8일 후보 단일화 합의 이후 처음으로 광주·전남을 찾았다.

지난달 28일 전북과 광주·전남 선대위 출범식과 지난 4일 전북 익산 원불교 행사에 참석한 데 이어 나흘만에 아권의 심장부인 호남을 다시 찾은 것이다. 매주 한번 꼴로 호남을 방문하는 셈이다.

예초 문 후보는 8일 제주 선대위 발대식에 참석하고 다음날 민생 현장을 둘러볼 계획이었지만 급히 일정을 변경, 광주 방문을 결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는 안철수 무소속 후보와의 단일화를 앞두고 광주 방문을 통해 호남에서의 지지율 상승 추세를 확고히 하겠다는 뜻이 담긴 것으로 풀이된다.

특히, 안 후보가 지난 4~5일 전북과 광주·전남 등을 잇달아 방문, 호남 민심에 지지를 호소하고, 아권의 심장부인 광주에서 ‘아권 후보 단일화 제의’를 한 점도 문 후보가 서둘러 광주를 찾은 배경으로 꼽히고 있다.

또한, 단일화 승패의 결정적 역할을 할 수 있는 호남의 바닥 민심을 잡지 않고서는 무소속 안철수 대선 후보와의 단일화 경쟁에서 우위를 점하기 어렵다는 절박함에서 지지를 제고할 위한 뒷밭 공략에 그야말로 총력을 쏟아붓고 있는 셈이다. 이는 문 후보 측이 최근 들어 호남에서 상승세를 타고 있다며 고무된 표정이지만, ‘호남의 선택’은 여전히 안갯속이어서 안심할 수 없는 처지이기 때문이다.

문 후보는 이날 저녁 광주시청에서 열리는 ‘2012 광주국제영화제’ 개막식에 부인 김정숙씨와 함께 참석했으며, 특히 이 자리에서 고(故) 김대중 전 대통령 부인인 이희호 여사가 참석해

문 후보 측은 이에 상징적 의미를 부여하고 있다.

문 후보는 9일에는 ‘소방의 날’을 맞아 광주 서부소방서를 방문해 소방관들을 격려한 뒤 5·18 기념문화센터에서 열리는 국가균형발전 정책간담회에 참석해 분권 정책 및 국가균형 발전에 대한 종합적인 구상을 밝힐 계획이다.

특히 이 자리에서 영·호남 교수 2000여 명이 문 후보 지지를 선언할 예정이다. 문 후보는 이어 조선대에서 광주지역 9개 대학 학생들과 토크 콘서트를 갖고 이들과 교내 구내 식당에서 오찬을 함께하며 청년 정책에 대한 논의를 한다. 문 후보는 이 자리에서 반값 등록금, 청년실업, 일자리 창출 등 청년 관련 정책구상을 밝히고, 지방대 학생들의 애로사항도 청취할 계획이다.

문 후보는 이번 1박2일 광주 방문을 통해 김대중·노무현 정부를 잇는 적자편을 내세워 자신을 아권 단일 후보로 만들어달라는 메시지로 ‘구애’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한편, 민주당은 문 후보 뿐만 아니라 중앙선거대책위원회와 산하 ‘소통과 통합 지역발전특위’ ‘국민통합위원회’ 등의 조직을 핵심축으로 해 후보 단일화 이전까지 저인망식으로 바닥 민심을 훑으며 뒷밭 잡기에 총력을 기울인다는 전략이다.

선대위원장이 뜬다는 대로 호남을 찾고 있으며, 동교동계 좌장격인 권노갑 상임고문 등 지역발전특위 내 원로 인사들과 ‘영남의 딸, 호남의 며느리’를 자임한 국민통합위원회 추미애 공동위원장이 각각 지역을 나눠 전남부터 2박3일간 일정으로 호남 투어를 돌입했다. 이들은 광주·전남을 돌며 “민주당의 뿌리가 호남이고, 민주당을 기울 수 있는 곳도 호남”이라는 점을 강조하며 “이번 대선에서 기필코 정권교체를 할 수 있도록 문 후보에게 힘을 실어줄 것”을 호소하고 있다.

앞서 문 후보는 이날 오전 영등포당사에서 열린 전국 지역위원장 회의에 참석, “단일화되면 누가 봐도 잡되지 않겠느냐는 안일한 생각은 절대 안 된다”며 “내가 문재인”이란 각오로 뛰어달라”고 독려했다.

최권일기자 cki@kwangju.co.kr



“함께 정권교체합시다” 8일 광주시청에서 열린 광주 국제영화제 개막식에 참석한 민주통합당 문재인 대선 후보 부인 김정숙씨와 문 후보, 고(故) 김대중 대통령 부인 이희호 여사, 무소속 안철수 후보 부인 김미경 교수(왼쪽부터)가 손을 잡고 환하게 웃고 있다. 최현배기자 choi@kwangju.co.kr

문·안 부인들 광주서 ‘내조 경쟁’

文 김정숙씨, 송정 매일시장 등 찾아 시민들 만나

安 김미경씨 “광주서 초등학교 다녔다” 지지호소

민주통합당 문재인 대선 후보와 무소속 안철수 후보의 배우자들은 8일 아권후보 단일화의 중요한 표심으로 여겨지는 호남에서 내조 경쟁을 펼쳤다.

후보 단일화를 앞두고 양 측 모두 호남 민심 향배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는 상황에서 문 후보의 부인 김정숙씨와 안 후보의 부인 김미경 서울대 교수는 이날 동시에 광주를 방문, 광복 행보를 펼치며 남편 지원 사격에 나섰다.

문 후보의 부인 김씨는 민주당 대선 후보 경선 이후 광주를 찾은 것이 이번이 네 번째고, 안 후보의 부인 김 교수는 선거 지원을 위한 첫 지방 일정으로 친정인 호남을 선택했다. 김씨는 오전 송정 매일시장을 방문

해 상인들과 인사를 나누고, 북구 효령동 노인복지타운 등을 찾아 시민들을 만났다.

오후에는 광주 북갑 대의원 대회에 참석하고, 저녁에는 광주국제영화제 개막식에 문 후보와 함께 참석했다.

김씨는 9일에는 청년들과의 토크 콘서트, 서구 보육시설 연합회, 소화자매원, YMCA청소년센터 등을 방문하는 등 숨가쁜 일정을 소화할 예정이다.

안 후보의 부인 김 교수는 이날 오전 양동시장과 빛고을노인건강타운을 찾아 민심을 청취했다.

오후에는 ‘근로정신대 할머니들과 함께하는 시민모임’과 5·18 민주화 광과정에서 여성운동을 주도했던 ‘오월 어머니집’을 방문하는 등 역사의

아픔을 경험한 이들의 목소리에 귀 기울여 눈길을 끌었다.

김 교수도 광주시청에서 열리는 광주국제영화제 개막식에 참석했다. 순천 출신인 김 교수는 광주에서 초등학교를 다녔으며, 부모는 현재 여수에 살고 있다. 안 후보 측은 “김 교수가 대선 후보 부인으로서 첫 공식 행보를 친정이며, 전통 야당 지지자지만 광주로 선택한 것은 의미가 있다”고 말했다.

한편, 두 후보 부인들은 단일화 회동 당일인 지난 6일 한국환자단체연합회에서 주최한 ‘제3회 환자사우팅 카페’에서 조우한 바 있다.

문 후보 측 관계자는 “서로 사전조율을 하고 만난 것은 아니지만 지난 달 유모차견기대회처럼 일정이 겹칠 때가 있다”며 “두 사람이 만나 특별한 얘기는 없었지만 만날 때마다 서로 ‘고생한다’며 위로하고 격려하며 따뜻한 분위기”라고 전했다. 최권일기자 cki@kwangju.co.kr

문·안 ‘새정치 공동선언문’ 4대 의제 합의

오늘 정당개혁 논의 진통 예고

민주통합당 문재인, 무소속 안철수 후보 측은 8일 단일화 합의의 첫 단계인 ‘새정치 공동선언문’의 4대 의제 설정에 합의했다.

문 후보 측 정해구, 안 후보 측 김성식 팀장을 포함한 양측 실무팀은 이날 서교동 인문카페 ‘창비’에서 첫 모임을 갖고 ▲새정치의 필요성과 방향 ▲정치개혁과 정당개혁의 과제 ▲새정치와 정권교체를 위한 연대의 방향 ▲새정치 실천을 위한 약속을 4대 의제로 설정했다.

새정치 공동선언문 두 후보가 본격적인 단일화 협상에 앞서 국민에게 제시하는 정치·정당개혁의 청사진으로, 두 후보는 이를 바탕으로 단일화 후에 양측 지지층이 분열되거나 ‘누수’되는 것을 막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날 양측 실무팀은 첫 번째 의제인 ‘새정치의 필요성과 방향’을 집중적으로 논의해 의견 접근을 이뤄냈다고 설명했다.

먼저, 두 후보 측은 기성정치의 무능과 과도한 갈등을 넘어 협력과 상생의 정치를 쫓고 정치권의 기득권을 내려놓고, 민의를 올바르게 대변하고 민생을 책임지는 삶의 정치를 지향하기로 했다.

더불어 양측은 국민주권 시대를 맞아 대의민주주의에 직접민주주의를 보완하는 소통의 정치, 참여의 정치를 지향하자는 데에도 동의를 이뤘다.

이날 회의는 문 후보 측 정 팀장이 인사를 통해 “빠른 선언문 채택”을, 안 후보 측 김 팀장이 “충실한 내용”을 강조해 협상에 난항이 예상됐으나 큰 이견 없이 진행된 것으로 알려졌다. 안 후보 측 심지연 경남대 교수는 회의 후 기자들에게 “이견이 없었다”고 말했다.

또 참석자들은 민주당 ‘이해찬-박지원 투톱’ 퇴진 등 관심을 끌었던 인적색인 부분은 다뤄지지 않았다고 전했다.

이날 탐색전 속에서 큰 틀의 의제를 합의한 만큼 본격적인 밀고 당기기는 9일 열리는 다음 회의에서부터 본격화될 것으로 보인다. 양측은 같은 장소에서 2차 회의를 열어 핵심쟁점인 정치·정당 개혁 과제, 정권교체를 위한 국민연대의 방향 등을 논의하기로 했다.

최대 쟁점인 정치·정당 개혁 분야는 안 후보가 제시한 국회의원 정수 축소, 중앙당 폐지 등에 대해 문 후보 측이 비판적이어서 진통이 예상되며, 국민연대는 두 후보의 지지층이 이탈하지 않는 방법을 찾는 게 핵심이나 방법론 찾기가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특히 양측의 부인에도 불구하고, 정치권 안팎에서 끊임없이 제기되는 신당 창당이나 공동정부 구성 문제까지 논의가 이어질 경우에는 논란이 불가피할 것으로 예상된다.

박지경기자 jkpark@kwangju.co.kr



우암학원 창학63주년
광주의 새로운 명문 대학교
남부대학교 (062) 970-0114
꿈을 이루는 특성화 대학교
전남과학대학교 (061) 360-5050

이 신문광고는 공직선거법 제137조의 규정에 따른 광고입니다

"민주당이 시작했으니 민주당이 완성하라"

단일화를 응원하는 국민의 목소리입니다

가슴 깊이 새겨들었습니다. 다 내려놓겠습니다. 작은 이익을 다투지 않습니다. 새롭게 태어나고 있는 민주당의 힘을 아름다운 단일화에 쏟아붓겠습니다. 국민을 안심시키는 단일화, 집권 후에도 안정된 국정운영을 할 수 있는 든든한 단일화를 해내겠습니다. 단일화의 물꼬도 민주당이 텃으니, 그 완성이 민주당이 책임지겠습니다.

민주통합당